

전자헤드기어 상용화 가능한가?

세계태권도연맹(WTF)이 2016년 리오올림픽을 겨냥해 전자헤드기어 도입 추진을 강하게 밝힌 가운데, 지난 22일(현지시간) 대만 대북시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전자헤드기어 도입을 위한 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시연회는 당초 WTF 공식 테스트로 치를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전자헤드기어에 대한 통일된 기준 스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전자헤드기어 도입에 대한 스크린 과정을 통해 경기 상용화 가능 수준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공인 절차 및 후속 과정을 만들기 위해 시연회로 결정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본격적 시연에 앞서 WTF 양진장 기술위원장과 장 마리 사무총장 역시 이번 이벤트가 시연회임을 강조했다.

시연회는 우선 WTF 기술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심판, 지도자, 선수,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양사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그동안 개발한 전자헤드기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어 시범 경기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공격이 손 및 팔 방어동작에 가로막힐 경우 특징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테스트로 이어졌다.

시범 경기에서는 양사 모두 확실한 머리 득점에 대해 유효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발꿈, 발뒤꿈치 등에 의한 머리 공격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그 빈도수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아디다스-KP&P 전자헤드기어가 대도 전자헤드기어보다는 유효타 득점 비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방어동작에 가로막힌 머리 공격의 득점 비율 부분에서는 대도가 아디다스-KP&P보다 유리한 평



아디다스-KP&P(왼쪽)와 대도의 전자 헤드기어 시연회 장면.

WTF, 상반기 내 공인 기준 및 절차 마련해 도입 머리 득점에 대한 혼란 우려도 적지 않아

가를 받았다.

RFID 태그 칩을 근접식 센서로 사용하는 아디다스-KP&P의 경우 센서의 유효타 인식 거리가 넓은 장점이며, 유효타 인식거리가 짧은 대도의 자석 센서 방식이 오히려 장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KP&P 관계자는 현장 시연회가 끝난 후 다음 날, 이에 대한 기술적 수정을 거쳐 방어 동작에 가로막힌 머리공격이 득점으로 표시되는 빈도수를 줄인 시스템을 추가로 소개했고, 발꿈과 발뒤꿈치에 의한 머리 득점 비율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RFID 태그 칩 탑재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도 역시 박전욱 사장이 "연맹이 정말로 리오올림픽에서 전자헤드기어를 사용할 생각이라면, 올해 그라운드 프리대회 등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시연회 결과에는 나 역시 만족할 수 없지만 실제 경기였다면 더 나왔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반응은 공정한 경기 운영을 취지로 추진하겠다는 전자헤드기어 도입 상용화가 오히려 머리 득점에 대한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1. 헤드기어에 의해 감싸지지 않는 머리 득점 부위 타격에 대한 득점 표시, 2. 머리 부분에 맞지 않았는데 표시되는 머리 득점 표시, 3. 한 번 접촉 후 미끄러지는 머리 공격에 대한 연속적 득점 표시, 4. 방어동작에 가로막힌 머리 공격에 대한 득점 표시 여부 중 비디오판독으로 조력 가능한 1번과 2번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4번의 경우 비디오판독에서조차도 가려내기 어려운 케이스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양사가 전자파에 의한 선

수 보호에 대해 자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신뢰도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그러나 WTF는 하반기 규모가 작은 대회에서부터 실제 적용을 시작,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사용 및 궁극에는 리오올림픽 사용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이다. 우선 이번 시연회 후 양사를 대상으로 각각 비공개 전자헤드기어 회의 등을 이미 거쳤으며, 상반기 내 공인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WTF는 이번 시연회와는 별도로 양사의 현장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도는 이미 스위스오픈과 US오픈대회 주니어부문에서 실전 경기 현장테스트를 마쳤으며, 아디다스-KP&P 역시 조만간 자사 전자헤드기어가 사용되는 국제대회 주니어부문에서 동일한 방식의 현장테스트를 실시한다.

WTF는 이를 통해 전자헤드기어 사용 실제 경기 결과와 비디오판독 재검증 과정을 거쳐 종합적 기준 마련 및 판단을 할 계획이다.

(양택진 기자)

KP&P, 아디다스와 리오올림픽 겨냥

아디다스와 공동브랜드 계약 체결로 브랜드 파워 제고 기대

세계태권도연맹(WTF) 전자헤드기어 공인업체 KP&P가 올림픽 후반기로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지닌 아디다스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KP&P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브랜드 계약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아디다스 역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한 소식을 전했다.

양사는 이미 지난해 공동브랜드 사용과 관련해 WTF로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지난해 양사의 계약 체결과 함께 이미 WTF에서도 이에 대한 공식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아디다스와 KP&P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함께 "Together for Taekwondo"를 캐피레이즈 정했다. 양사의 공동브랜드 사용이 전세계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다.

이와 관련 아디다스 마셜 아트 라이선스 마케팅 디렉터는 "지난 6년간 KP&P 전자헤드기어를 만들어 지켜



봤으며, 그 결과 현존하는 전자헤드기어 중 태권도 기술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는 안정적인 제품으로 판단했다. 아디다스 브랜드를 공유해도 손색 없는 제품이라는 판단 하에 이미 지난해 3월 독일 아디다스 본사에서 공동브랜드 사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KP&P 조성근 대표 역시 "양사 결합의 1차 목표를 2016년 브라질 리오올림픽에 두고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보다 진일보한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KP&P는 전자헤드기어 및 IT 융합기술력에 아디다스의 글로벌 브랜드 및 마케팅 파워를 더해 본격적인 전자헤드기어 경쟁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아디다스는 KP&P와의 공조로 복싱, 가라데 등에도 제품을 응용 확장하여 시장을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WTF 공인 전자업체는 현재 대도와 KP&P 두 회사. 대도가 런던올림픽에서의 사용 후 주요 국제대회에서 사용되며 선발주자의 이점을 갖고 있다면, 지난해 공식 공인된 KP&P는 앞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의 불리한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아디다스와의 공동브랜드 계약 체결로 국제시장 접근성의 탄력을 받게 되었고, 유럽시장 공략에도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택진 기자)

오합지졸 '예체능' 지도사범에 이규형 & 정국현 투톱

본격적인 수련 과정 돌입

'우리동네 예체능(이하 예체능)' 태권도단 지도사범으로 이규형 사범과 정국현 교수가 투톱을 이뤄 오합지졸 12명의 조련에 나선다.

지난 18일 방송된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48회에서 '예체능' 태권도단의 첫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인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어린이 대표 임현제 군과 주부 대표 박지혜 씨, 청소년 대표 김나현 양, 그리고 청년 대표 박종겸 씨가 합류한 가운데 과연, 이들이 '오합지졸'에서 진정한 '태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이들과 함께 86아시아계 임과 88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태권도 시범단 지휘를 담당했던 이규형 사범과 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선수권대회 4연패에 빛나는 정국현 교수가 '예체능' 태권도단 사범으로 나서게 되었다.

두 사범은 첫 등장에서부터 카리스마와 번뜩이는 눈빛으로 '예체능' 태권도단을 사로잡았고, 메인



진행자 강호동 역시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존경을 드러냈다.

'예체능' 제작진은 "대한민국 국가' 태권도를 처음 접하게 된 만큼 태권도에 있어서 대가 두 분이 '예체능' 태권도단을 위해 흔쾌히 나서주셨다. 평생 태권도 외길을 걸으며 열정을 불사르신 이규형 대사와 정국현 사범님이 '오합지졸' 12명을 맡아 지도해주시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정한 태권인으로서

한층 성장해 나갈 '예체능' 태권도단의 모습과 함께 최인선 감독님과 또 다른 포스로, 강인한 파워와 그 안의 절제, 정신력으로 '예체능' 태권도단을 이끌어주시길 두 사범님의 리더십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동네 사람들과의 스포츠 찬란 대결을 펼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우리동네 예체능'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20분 방송된다.

(양택진 기자)

1면에 이어 8강전에서 네델란드의 파드 자오우이아를 맞아 12대 7로 승리한 주동훈은 그러나 준결승전에서 대만의 유 쥘 후양의 변칙적인 뒤통수 머리 공격에 허무하게 대량득점을 허용하더니 결국 15대 5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중고연맹은 이번 유스올림픽 대회 출전과 관련 선수선발권을 대한태권도협회(KTA)로부터 위임받아 지난 1월 태백에서 제10회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선발대회 겸 제2회 난징하계청소년올림픽 과련대회를 치른 바 있다. 당시 1위자는 청소년선수권

출전, 유스올림픽 출전체급 2위자가 이번 선발전에 출전하기로 했다.

한국 팀의 참패와 관련해 중고연맹 관계자는 "대도 전자헤드기어에 대한 적응도 부족했고, 합숙훈련도 하지 못하는 등 준비 부족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1회 유스올림픽 이후 입상자 및 지도자에

대한 혜택이 적어 유스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 팀이 유스올림픽 본선에 1체급 출전만 하는 초유의 사태에 놓인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 및 향후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3 전국어린이태권왕대회



● 기 간 : 2014. 5. 2(금) ~ 4(월) / 3일간

● 주 최 :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 승 인 : 대한태권도협회

● 장 소 : 강원,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06 / 033-370-2547

● 주 관 : 강원도태권도협회, 영월군태권도협회

● 후 원 : 스포츠토토, 대도인터내셔널